

# 놀고 먹고 쇼핑하는 복합쇼핑몰 전국 43곳...광주만 없어

### 스타필드 하남 지난해 매출 1조1500억...1만4000명 고용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창고형 할인점·현대백화점 철수 경험 역의 소비유출 방지 최대 이점...골목상권 상생 묘수 찾아야

광주와 전남·전북 등 호남 전체를 통틀어도 쇼핑과 함께 여가, 휴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백화점을 접목한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코스트코, 이케아, 이마트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등 대형 문화·쇼핑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7년 전인 2015년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과 함께 쇼핑 복합시설을 건립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일부 반발과 정치권 개입 등으로 무산됐다.

대형 유통시설은 '소상공인 상권을 지켜야 한다' 명분에 가로막혀 규제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지역의 민간 소비 외부유출을 막고 고용효과도 확실하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호남은 복합쇼핑몰 불모지? 6일 지역 유통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3000㎡ 안팎 (중)대규모 점포는 광주지역에 모두 31곳 있다.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광주점·NC백화점 (옛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백화점 3곳과 대형마트 10곳, 롯데아울렛·NC웨이브 등 쇼핑센터 6곳, 금호월드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광주에 있는 이들 대규모 점포들은 요즘 말하는 놀고, 먹고, 즐기고, 쇼핑하는 복합쇼핑몰의 범주와는 거리가 멀다.

복합쇼핑몰이라 하면 대개 창고형 할인점과 즐길 거리를 갖춘 '스타필드' (경기)와 센텀시티(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롯데·현대) 등을 떠올린다. 규모로는 10만㎡ (3만평) 부지를 갖춘 시설이 '대형 복합쇼핑몰'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지상 43층 신세계 브랜드 호텔과 백화점, 과학관·수족관·스포츠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 '대전신세계 아트&사이언스'가 새로운 복합 체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여건에 해당하는 대형 복합쇼핑몰은 올해 기준 전국에 모두 4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축구장 70개 크기 연면적 46만㎡ (14만평) 규모 스타필드 하남은 2016년 개장한 뒤 경기지역에만 총 7개 점포로 확장했으며, 오는 2025년 창원특례시에도 출점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하남은 지난해 연 매출 1조1500억원을 기록했으며, 1만40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냈다.

◇광주·전남 쇼핑시설 수난사=특급호텔 조성이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창고형 할인점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유독 호남권 진출에서 고배를 마셨다. 남악신도시에 들어서려 했던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4년 만에 무산이 확정돼 지난해 1만3000여㎡ 부지를 팔고 떠났다.

올라린 중심으로 급변하는 시장 변화 속에서 단순 할인판매에만 머무른 쇼핑시설은 지역에서 도태되고 사라지는 추세다.

이마트의 경우만 봐도 2019년 상무점이 폐점됐으며, 지난해 광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동광주점도 영업을 종료했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

장 먼저 밝힌 현대백화점 역시 9년 전 광주에서 철수한 전력이 있다. 현대백화점은 1998년 송원백화점을 위탁 경영하면서 광주에 진출했고, 15년간 현대백화점 광주점을 운영했다.

◇역의 유출 막고 골목상권 상생 묘수 찾아야=지역 경제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유치 당위성을 '역의 소비유출 방지'에서 찾고 있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광주와 전남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각각 2.2%, 2.3% 감소했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올해 1분기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소매판매액 실적이 줄어든 도시는 광주(-2.2%)와 울산(-2.0%), 대구(-0.6%) 등 3곳이다.

반면 전년보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증가한 도시는 서울(3.7%)과 부산(2.1%), 대전(2.0%), 인천(1.7%) 등 4곳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처럼 대도시의 소비지표 회복이 엇갈린 원인을 '역의 유출'에서 찾고 있다.

광주신세계 사례만 봐도, 회원고객이 지난 한 해 다른 지역 신세계백화점에서 쓴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해외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부산 센텀시티 등에서 쓴 금액은 역의 유출 소비의 80%를 넘어선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중 세 번째 규모로 문을 연 대전신세계로 유출된 광주신세계 고객의 소비는 개점 첫 달에만 50억원을 넘었다. 현지법인인 대전신세계의 역외소비 유입비중은 5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다른 지역을 압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복합쇼핑몰 건립을 희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인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현지법인으로 27년 동안 함께 한 광주·전남·전북 500만 사·도민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복합개발을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과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상품군과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개발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 등과의 다양한 갈등 해결은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번 현대백화점그룹의 복합쇼핑몰 광주 진출도,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2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회원사로 활동하는 광주시상인연합회 손중호 회장은 "방직공장에 현대백화점이 복합쇼핑몰 출점을 추진하면서 주변 상권에 언질을 주거나 논의를 벌이지 않은 건 유감"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어느 쪽이 추진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당정 "물가급등 대책 신속 집행...매달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 "부동산 규제 합리화 최우선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최근 물가 급등 상황과 관련,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법안 등의 처리를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매달 정례적으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8일 만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물가 안정 등 민생 현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민생체감도가 가장 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식품 분야의 이미 발표된 대책의 집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80%로 인상,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공공요금 동결 기조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및 에너지바우처, 법인택시와 버스 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6·1 지방선거 직전 통과시킨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당에서는 취약계층 생활 안정,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대책으로 예산 아·전용 기금 변경, 할당관세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사건

###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복속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죄), 공문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서 "탈북어민 강제 복속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연합뉴스

##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동행' 이해충돌·사적수행 뇌관되나

###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이용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 당시 이원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논란이 6일 확산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이용했고, 대통령 부부가 묵었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른 등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A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로,

한방 관련 회사 대표를 지냈으며 윤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쟁점은 A씨가 스페인 방문 기간 수행한 업무가 김 여사 일정 관련이었는지 여부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인인 A씨가 현지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면서 A씨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기타 수행원 신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A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채용절차가 추진됐었다는 점은 확인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목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목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목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